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0호 【루체 제25303호】 주제105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망, 미래사망이 뜨겁게 어려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품결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한층더욱 소중히 간직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소년단대표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 무한한 행복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여기시며 세상에 부럽없는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렸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주체조선의 소년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학생소년들을 다사로운 한품에 안아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고마움에 넘쳐 소년단대표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에 겨워 영광의 환호를 올리는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적소년

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가는 나 어린 애국자,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소년단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리져올라 6월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주체조선의 자랑이고 희망인 우리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지역체를 결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펼칠 휘날리며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의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